



국방저널 기획 '성곽순례' 공주 공산성

백제의 대표적 고대 성곽인 공주 공산성(公山城). 총 길이 2660m의 작은 성이지만 금강을 따라 쌓은 성벽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아찔해 천혜의 요새라는 느낌이 강하다. 공산성은 성 자체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내부에 백제의 생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왕궁지와 건물터, 연못 터 등이 남아있어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국방저널 6월 호가 기획기사 '성곽순례' 네 번째 순서로 찾아간 공산성 이야기를 소개한다. 기사 전문은 국방저널 e북에서 만날 수 있다. 글=조진섭/사진=이경원 기자



왕궁지·임류각... 백제가 숨을 쉰다

백제 시대에 웅진성(熊津城)으로 불렸던 공산성은 백제 문주왕이 475년 이곳을 도읍으로 정하고 성왕 16년인 538년 부여로 천도할 때까지 64년 동안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다. 처음에는 토성이었지만 조선 시대 선조·인조 때 지금같은 석성으로 축조됐다. 공산성 일부(390m)에는 아직도 흙으로 쌓은 성벽이 남아 있다.

공산성은 영동루(迎東樓), 금서루(錦西樓), 진남루(鎭南樓) 공북루(拱北樓) 등 동서남북으로 4개의 성문을 갖췄다. 정문 역할을 하는 금서루에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7·8월 우기를 제외하고는 매주 토·일요일 수문병 근무를 재연하는 '웅진성 수문병근무교대식'이 치러져 볼거리를 제공한다. 금서루는 성안으로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흔적이 사라졌다가 1993년 복원됐다.

동쪽의 영동루는 한때 무너져 없어졌지만 1980년 발굴 조사 과정에서 문을 지탱하던 돌이 발견돼 옛 기록을 근거로 1993년 복원했다. 영동루 옆에는 다른 성문과 달리 흙으로 쌓은 성벽이 이어져 있어 백제 시대 옛 성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남문인 진남루는 조선 시대 전라·경상·충청 등 삼남의 관문으로 출입하던 성문이다. 높은 석축 기반에

건물을 세워 단층이지만 2층 누각처럼 보인다. 공북루는 성문 아래 비단결 같은 금강이 유유히 흘러 멋진 경관을 자랑한다.

성 안에는 백제 왕궁터로 추정되는 왕궁지와 돌로 정연하게 쌓은 연지 등 연못 2개소, 그리고 각종 유물이 남아있다. 또 세조 4년(1458)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사찰 '영은사'와 백제 동성왕 때 신하들과 연회를 열던 누각, '임류각'을 만날 수 있다.

1624년 조선 인조가 이괄의 반란을 피해 공주에 잠시 머문 것을 기념해 지은 '쌍수정(雙樹亭)', 가장 높은 전망대로 알려진 2층 누각 '광복루'도 공산성과 함께한 역사를 알려준다. 광복루는 군대를 지휘하던 곳으로 원래는 북문인 공북루 옆에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지금 위치로 옮겨 '웅심각'으로 불렸다. '광복'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1946년 4월 김구 선생과 이시영 선생이 나라 되찾았음을 기리고자 이름을 바꾼 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 정유재란 당시 공주에 파견돼 왜군과 싸운 세명의 명나라 장수를 기리는 '명국삼장비', 군대를 지휘하는 건물이 있었던 자리인 '장대지' 등 곳곳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1 성문 바깥쪽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는 공북루. 2 공산성 4개 성문 중 하나인 금서루. 현재 공산성 정문 역할을 하고 있다. 3 만하루 뒤쪽으로 보이는 연지. 4 금강과 접해있는 만하루(조선시대에 건립된 누각) 뒤로 영은사가 보인다. 5 공산성 전경. 아름다운 금강을 따라 이어진 야경이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